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윤 경 우 (Yun, Gyong-woo) *

(E-mail : gyongwooyun@kookmin.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1월 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19일

* 학위취득대학 : Temple University
현직: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9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확산된 민족주의 사이의 관계를 조망한다.

당·정 문건과 대학의 공통필수과목 교재의 내용분석 결과, 중국 대학은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국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학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실태분석 결과, 대학의 애국주의 교육이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생 네티즌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주제어] 중국, 인터넷, 애국주의 교육, 사이버민족주의

I. 서론

중국의 사회변화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결정적이다. 최근 중국 사이버공간에서 과열되고 있는 민족주의 과열 현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의 정체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집권 정당성 및 지배권을 강화하고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당 정부는 민족주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8-323-B00024)과 2011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받아 연구되었음.”

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공산당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애국주의 교육운동이 등장했다. 그 결과 최근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족주의 편향의 사건들은 대부분 애국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신세대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신세대 네티즌이 주도하는 사이버민족주의 현상을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사이버 공공영역에서 형성되어 빠르게 확산되며 점차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신세대 네티즌의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 국내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를 경제적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인한 서구 주요 국가의 견제 및 압박이나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환경 및 질서의 특징과 네티즌의 심리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에 따른 요인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尙洋 2005; 王軍 2006; 羅迪 毛玉西 2006; 潘亞玲 2008; 卜建華·趙金亮 2009; 陶文昭 2009; 楊飛龍 王軍 2010).

서구에서 영어로 발표된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부심이 서구로 대표되는 외국의 자극 및 환경에 반응하여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결과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서구 국가 등 외부에 대한 반감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체제적인 성격과 그로 인해 조성된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Wu 2007; Bajora 2008; Reilly 2010; Liu 2010; Shen 2010; Pan 2010; King 2010; Lee 2010).

한국 내에서 사이버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백지운(2005)은 글로벌화 과정에서 서구 중심의 글로벌 문화와

중국 문화정체성의 모순과 긴장이라는 틀 속에서 사이버민족주의 형성에 주목한다. 박기철(2011)은 ‘강국논단(強國論壇)’ 사례를 통해 사이버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윤경우(2007, 2011)는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인터넷 발전과 사이버민족주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왜 사이버민족주의가 신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내용 및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인 신세대 네티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 구조적 요인, 현실적 조건 등 중국의 특수성이 행위자인 공산당 정부와 대학 그리고 대학생 네티즌의 선택을 제약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국가와 상이한 대응을 하도록 만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전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설정됐다. 첫째, 민족주의는 어느 민족에게나 일반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 조건과 상황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대학교육 정책 형성 및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경로의존적인 제도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의 대학교육도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셋째, 동일한 수단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사이버문화에 상이한 대응을 한다. 즉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특성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전제 및 특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에서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사이버민족주의의 확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이 사이버공간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여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배타적 민족주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 가설들의 증명을 시도한다.

첫 번째 가설은 중국의 모든 대학생이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필수 과목들이 국가의 애국주의 운동 지침에 따라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애국주의교육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대학의 기존 공통필수 과목의 교육에 애국주의 내용이 교묘하게 혼합되어 대학생들의 폐쇄적 민족주의 의식 형성에 기여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해 공격적인 형태의 민족주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폐쇄적인 민족주의 문화가 형성·확산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는 대학생 네티즌이다. 그리고 대학생 네티즌 개인 또는/그리고 집단의 선택 및 행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가와 그에 종속된 대학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현상이 형성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대학 그리고 대학생 네티즌의 역할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는 공산당 정부 주도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국가의 방침을 대학이 어떻게 수용하여 대학교육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대학의 애국주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생 네티즌의 의식 형성 및 행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식을 취한다. 중국 애국주의 교육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당·정(黨政) 문건, 대학의 공통필수과목 교재,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사이버민족주의의 진행 상황과 실태를 보여주는 각종 언론보도 및 사례, 대학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와 관련된

논문 및 간행물 등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한다.

II. 민족주의의 진화 양상

1. 근대 민족주의 형성의 배경

184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는 서구의 근대적 개념인 민족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민족적 경계를 화이사상(華夷思想)에 따라 천하(天下)의 중심국가인 중국(中國)을 제외한 모든 타자들을 남만(南蠻) 북적(北狄) 동이(東夷)·서융(西戎) 등 오랑캐로 차별적으로 구분했고, 이는 중국의 천자(天子)가 모든 이민족을 교화(教化)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천하주의(天下主義) 세계관을 낳았다. 중국에서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혈연과 종족이 아니라 문화적 우월성과 그 영향력이었다. 따라서 과거 중국의 민족의식은 서구적 개념의 민족주의 대신에 ‘문화주의’(文化主義·culturalism)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Harrison 1969).¹⁾

하지만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당한 굴욕적인 패배는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과 함께 중국의 위상을 철저히 파괴했다. 19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국민국가(nation-state)에 바탕을 둔 서구식 민족주의가 서구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고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됐고, 붕괴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반영됐다. 이후 일본의 침략과 함께 민족주의는 더욱 고조됐고, 공산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을 받으면서 피동적인 반응의 결과로 형성

1) 헤리슨은 중국의 전통적인 자상(自像·self-image)은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서양의 근대 개념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nationalism)가 아니라 공동의 역사유산과 공유된 믿음들에 기초한 ‘문화주의(culturalism)’라고 정의했다.

되어 외세에 배타적인 형태로 발전한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중국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Pye 1996). 과거 1백여 년 동안의 반제국주의·반패권주의 정서도 이러한 잠재의식에서 비롯됐다(Gries 2004). 그러한 역사적 정서가 강력한 동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과거의 찬란한 문화적 우월감과 극심한 심리적 격차로 인해 중국이 실추된 명예 및 존엄성을 되찾고 싶어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지도자들 및 지식인들은 근대에 들어선 이후 정권과 체제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국가체제의 정의 및 민족주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민족정서를 자극하며 중화민족 의식을 강화시켜왔다. 신중국(新中國) 성립이후에도 민족주의 정서는 공산당 정부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고, 관방민족주의(官方民族主義)의 형태로 애국주의(愛國主義)와 결합하여 계승·전수되어 개혁개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근대민족주의는 서구와 다른 역사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됐고, 현재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도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적 성격의 역사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외부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강렬한 국수주의적 애국심이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내면에는 서구 및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형성된 강한 심리적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지나친 견제나 위협 또는 국제사회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마다 상당히 격렬하고 격앙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 신민족주의와 사이버민족주의 등장

사이버민족주의(cyber-nationalism)는 인터넷의 상용화 이후에 등

장한 신조어이다. 이와 상응하는 용어는 ‘internet nationalism’, ‘on-line nationalism’, ‘web-nationalism’, ‘e-nationalism’, ‘nationalism on the net’ 등 다양하다. 중국에서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단어를 더하여 ‘網絡民族主義’라고 칭한다. 모두 민족주의가 형성·확산되는 기반을 칭하는 단어와 민족주의를 합성한 표현이다. 결국 사이버민족주의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민족주의 사조를 말한다.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이버민족주의’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등장한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와 깊은 관계가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의 중국 민족주의는 그 이전의 민족주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대두된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로 부활한 정치적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대중이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한 데 있다.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외부의 견제와 압력 또는 위협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으로 인한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상기된 강국(強國) 정서의 표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세계질서를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가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중국은 서방을 학습하는 분위기였고 친미적인 태도마저도 보였으나, 경제발전으로 고양된 대중적 자신감과 지나친 서구 문명 동경에 대한 지식인의 반성이 혼합되어 서구를 모방의 대상자에서 현실적인 경쟁 또는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栗志剛 2004).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의도와 태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해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목격한 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주도적으로 동유럽식의 급진적인 민주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련식의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다(조영남 2002). 이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이후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 속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정체성이 약화

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공산당 정권의 집권 정당성 및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1995년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신세대 대학생들의 주도로 사이버공간에서 확산된 민족주의의 근원지도 중국 공산당 정부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89년 천안문사건의 혼란을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적 사조가 일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붕괴에 이어 1991년 구소련의 해체를 목격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서구사상의 영향과 국가분열을 막고,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이버민족주의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통해서 중국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후 급속하게 신장되기 시작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굴기(崛起)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면서 나타난 외부의 경계와 견제에 의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 1996년 미·일 신(新)안보 지침, 1999년 나토(NATO)의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포격, 2000년 미국의 중국 올림픽 유치 방해,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반복되는 미 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논의, 2005년 일본의 역사왜곡문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이 된 중국위협론 제기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결국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는 근대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축적된 반서구 및 반일 정서, 경제적 발전과 함께 신장된 국력 및 향상된 국제적 지위에 따른 자신감, 공산당 정부의 조작적 애국주의 교육운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등장했다. 특히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약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완하여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인식한 국가

지도부의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의 국수주의적 활동에 대한 방관 또는 묵인이 암묵적인 호응 또는 지지의 신호로 해석됨에 따라 사이버 민족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Ⅲ. 애국주의 교육의 전개과정과 실태

1.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교육운동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천안문사건, 동유럽의 민주화, 구소련의 해체 등을 목격한 공산당 지도부의 체제전환기 국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애국주의 교육운동의 재등장으로 이어졌다(Zhao 1996). 이와 더불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 및 일본이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민주화 압력을 통해 견제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증폭된 것도 작용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나, 급속한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 간 불균등한 경제발전과 계층 간 불평등이 첨예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 거취문제 및 대만 독립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설상가상으로 시장화는 국가권력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갈수록 이완시켰다. 이러한 국내 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가 지도부 및 공산당 정부의 인식도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교육운동이 강화되는데 기여했다(李新 1996).

간단히 말해,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교육운동은 기본적으로 국내 외의 상황변화로 야기된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산당 정부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강화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갈수록 퇴색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

주의 의식보다는 국가에 대한 애국주의 의식의 고취가 사회 공동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 및 판단에 의거하여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91년 4월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教育委員會) 관공실(辦公室)이 <關於在中小學進一步發展愛國主義教育活動的意見>을 발표한 이후 애국주의 교육을 위한 선전운동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4년 8월 중공중앙(中共中央)이 공표하고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가 입안한 <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이하 綱要)>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의 실시가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세대의 애국주의 교육의 바탕이 됐다.²⁾

강요(綱要)에 나타난 애국주의 교육의 기본원칙들은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는 애국주의를 사회주의 현대화, 개혁개방, 국가와 민족의 단결과 이익, 중국의 주권과 중화민족의 자존, 민족 단결, 중국의 통일 등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동질시하면서, 애국주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보다 더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윤휘탁 2007). 강요는 애국주의 교육의 목적 및 지향을 중국인들의 애국 열정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화문명의 부흥을 위해 중국 인민을 단결 분투 통일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요는 애국주의 교육의 내용을 전통 및 역사 교육, 국정(國情) 및 공산당의 업적 홍보, 민족단결 및 국가통합,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강조 등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전통 및 역사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거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었던 유학(儒學)을 부각시키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국정 및 당의 업적 홍보 교육은 반(半)식민·반(半)봉건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중국 인민을 혁명을 통해 해방시킨 업적과 개혁

²⁾ 강요(綱要)는 애국주의 교육의 의미, 기본원칙, 주요 내용, 중점대상 및 구체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개방의 성과를 과시하는 내용으로 공산당 집권 정당성 강화를 지향한다.

민족단결 및 국가통합 교육은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민족 간, 지역 간 갈등과 분리주의적 경향을 경계하고 이를 극복하여 국가 및 민족의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 강조는 개혁개방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 및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중국 애국주의 교육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산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³⁾ 즉 국가가 직접 애국주의 교육 강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발전·정치안정·사회통합·민족통일의 비전을 강조하며 공산당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주의적 성격은 애국주의 교육운동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공산당 정부는 주도적으로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교육적 캠페인 및 행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당 정(黨政)은 일련의 애국주의 관련 문건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원칙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더욱 체계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당·정 조직이 직접 나서 각종 캠페인과 행사를 정례화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초 중 고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애국주의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하고, 애국주의 교육과정에서도 실천 활동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丁如許 2006).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부,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 공청단중앙위원회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3) 이 용어는 자오의 ‘state-led nationalism’이란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Zhao 1998).

위한 추천 도서, 영화, 음악을 각각 100개씩 지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및 관련기관은 직접 애국주의 교육적 가치가 높은 영화 및 음악을 제작하고 도서를 출판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며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민정부(民政部), 문화부,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 공청단중앙위원회(共靑團中央委員會), 인민해방군 정치부가 전국 각 지역에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관의 성격의 ‘애국주의교육기지(愛國主義教育基地)’를 지정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⁴⁾ 또한 인민일보(人民日報)를 포함한 관제언론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전문적인 애국주의 교육용 페이지를 개설하여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포럼 사이트 및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애국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2. 대학 교과과정에서의 애국주의 교육 내용

개혁개방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지식인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자유화 및 서구화의 움직임은 1989년 천안문사건이라는 체제 위기의 상황을 야기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더 이상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식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집권 체제의 정당성 회복 및 사회의 안정 확보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1990년대부터 국가는 대중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애국주의 세력을 보호하는 후견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애국주의 강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전재호 2004).

4) 1995년 3월 민정부가 처음으로 100개의 애국주의교육기지를 지정했다. 1997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중앙위원회, 인민해방군 정치부의 명칭 결정을 거쳐, 이들 애국주의교육기지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추천했다.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001년 6월 100개, 2005년 11월 66개, 2009년 5월 87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중국 전국에 총 353개의 애국주의교육기지가 지정된 상태이다. 중국역사박물관, 중국혁명박물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항미원조기념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애국주의 운동은 국가가 정한 애국주의 교육 강화 지침에 따라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먼저 나갔다. 이후 초·중·고의 통합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는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됐다(김정호 2007; 이춘복 2009).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중국의 각 대학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1994년 중국 공산당이 애국주의 교육 지침으로 공포한 강요(綱要)에 따라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애국주의 교육이 수용됐다. 한국 대학의 공통필수과목에 해당하는 공공과(公共課)인 《毛澤東思想,鄧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概論》, 《毛澤東思想和中國特色社會主義體系概論》, 《馬克思主義哲學原理》, 《思想道德修養與法律基礎》, 《中國近現代史》, 《形勢與政策》, 《當代世界政治與經濟》, 《軍事理論》, 《軍事技能訓練》 등 과목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애국주의 교육의 바탕이 되고 있다. 중국 대학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 등 북경 소재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교재의 내용분석을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사상정치 과목, 도덕 또는 윤리 과목, 역사 과목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위에 열거한 과목에서 사용되는 공식 교과서는 강요(綱要)의 지침에 따라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 및 우수한 전통문화, 공산당의 기본노선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성과 및 사회주의의 우월성, 중국의 국정(國情) 현실 및 세계 속의 중국의 위상, 책임의식 및 법규 준수, 주권의식 및 영토의식, 투철한 국가관, 민족단결, 일국양제 및 통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북경지역 대학의 사상정치 과목 교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毛澤東思想,鄧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概論(修訂版)》 내용을 분석한다(柳禮泉 2008). 이 교재는 애국주의를 “인민의 복지를 위한 중국공산당의 근본 목표이며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의 정신적 지주”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반드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통일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정신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애국주의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주의초급단계이론’을 설명하는 장(章)에서는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목표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한다. ‘사회주의개혁과 대외개방’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사회주의의 길을 가야만 비로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고 개혁개방이 바로 “중국이 번영·부강해지는 길이요 사회주의 발전의 직접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독립자주,’ ‘자력갱생,’ ‘민족 자존심,’ ‘종합국력의 부단한 증강’ 등의 용어를 빈번하게 반복 사용하며 국가의 주권 수호와 강대국 진입 목표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중화주의 패권을 현실화하겠다는 야망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 건설’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반식민지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킨 공산당의 업적을 홍보하며 현 정치체제를 옹호하고, 서구 기준의 인권을 중국에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국가와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 건설’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영욕관(榮辱觀)’을 강조하며, 서구와 차별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애국하는 인민이 될 것을 강조하며 ‘애국주의,’ ‘민족정신,’ ‘우수한 민족문화,’ ‘자존감,’ ‘자긍심,’ ‘민족단결’ 등의 단어들을 빈번하게 반복 사용한다. ‘사회주의와 조화사회 구축’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민족과 계층의 ‘조화,’ ‘민족단결’을 강조하며, 애국주의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사랑과 동일시한다. 또한 과거 비판 및 배격의 대상이었던 유교(儒教)이념을 사회주의 이념과 결합하여 장황하게 설명한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 구상’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개념을 통해 양안통일(兩岸統一)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길

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한다. ‘국제전략과 외교정책’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 보호, 국가·영토 주권, 국가 이익, 국가 안전 등 문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긴밀하게 결합”하여 국가의 국제업무 및 대외관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외부 세계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毛澤東思想,鄧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概論》,《毛澤東思想和中國特色社會主義體系概論》,《馬克思主義哲學原理》는 대표적인 사상정치 교과목이다. 중국에서 사상정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세계와 인생을 인식하고, 공산주의 의식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중국 체제의 특성상 사상정치 교육은 교양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한 교재에는 초반 일부 장(章)을 제외하고 맑스주의, 레닌주의, 마오(毛)사상으로 이어지는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직접적인 강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상보다는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 논리의 강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도덕 또는 윤리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덕육(德育) 또는 품덕(品德) 과목인 《思想道德修養與法律基礎》도 마찬가지다. 이 과목은 원래 공산주의 도덕원칙을 기초로 공산주의 도덕의 이상과 사회주의 국민의 도덕규범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재인 《思想道德修養與法律基礎》은 대학생활과 인생발전, 건강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유지, 가치 있는 인생, 민족정신 및 애국주의 전통 확대·발전, 도덕 수양, 사회公德(公德) 가정미덕(美德)·직업도덕의 준수, 법률의식 제고, 법치정신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劉瑞復·李毅紅 2008; 王英鑒 2009).

하지만 이 교재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래의 교육 목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교재는 “수천 년 동안 불변하고 지속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일종의 가장 심오한 감정”이라고 애국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애국주의를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서 출발한다. 중국의 전통도덕은 애국주의를 추앙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법률도 명확하게 국가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국민(公民)의 기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 시대에 범지구적 무한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국의 미래이며 희망인 대학생에게 애국주의 소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재 내용의 대부분을 애국에 할애하고 있다(劉夢娟 唐智敏 2008).

중국 대학의 역사교육도 공식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애국주의 교육을 동시에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보다는 애국주의에 더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있다. 공통필수과목인 《中國近現代史》의 교재인 《中國近現代史綱要》는 외세의 침략과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저항 및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과정을 의식적으로 집중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근대의 부패 및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현재의 중국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중화민족의 강한 자주독립 정신 및 투쟁과정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이해시켜 체제적 정당성 및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상정치, 도덕, 역사 과목의 교재는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이로운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국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개혁개방 이후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산당의 위대함과 국가에 대한 공헌을 주지시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민족주의를 공산당 집권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의 결과는 대학생이 주축을 이루는 중국 네티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표출하고 있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감정의 바탕이 되고 있다.

IV. 애국주의와 사이버민족주의 관계

현재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과거 중국의 대학은 강력하게 제도화된 국가권력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 결과 그 존재 자체가 미미했다.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시장화가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의 정립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학에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국가의 통제력도 여전히 막강하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는 여전히 대학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 자체도 국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국가와 타협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고 대학이 실행하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은 사이버공간에서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며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표출하고 있는 신세대 대학생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의 분명한 증거이다.

그렇다고 애국주의의 세례를 받은 네티즌들의 민족주의 표출이 국가의 직접적인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매체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민족주의 정서 표출은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다만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네티즌들이 민족주의 정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이지, 그들이 민족주의 정서를 표출하도록 직접 동원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사이버민족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이슈가 제기되거나 사건이 발생할 때, 일반

적으로 상업화된 관제 언론이 제일 먼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 국가가 허용하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정적 보도를 한다. 때로는 네티즌들이 민족주의 여론을 직접 조장하기도 한다. 간혹 일부 언론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무근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언론보도에 반응하여 네티즌들이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에 대한 공세적인 내용의 글 올리기, 댓글 달기, 퍼 나르기 등을 하며 민족주의 정서를 증폭시킨다. 이들은 1980년 이후 주로 독생자로 태어나 개성이 강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동시에 애국주의 교육 세례를 철저히 받아 ‘위대한 중화민족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대학생 및 대학 졸업 후 갓 취직한 젊은 직장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가 방조, 묵인, 암묵적 동조, 소극적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여론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폭발적으로 증폭된다. 사이버공간에서 배타적이고 공세적인 민족주의 열풍이 급속하게 확대될 경우, 네티즌들은 대대적인 서명운동, 불매운동,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 정부기관 및 기업의 중요 사이트 해킹, 극단적으로 편협하고 공격적인 비난 글 게시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강경외교 전략을 취하고, 사안에 따라 상대국에 사과의 배상을 촉구한다.

네 번째 단계는 국가의 개입으로 네티즌들의 민족주의 열풍이 소강상태 또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공산당 정부는 언론매체에 보도자제 지침을 시달하고 검열을 강화하여 사이버공간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진정시킨다. 이러한 국가 개입은 크게 두 가지 우려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네티즌들의 지나친 민족주의 정서의 표출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반중(反中)정서를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익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처음에 외세를 목표로 시작한 민족주의 열풍이 대내적 불만과 결합하여 중국

공산당 정부를 표적으로 한 반체제 운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 및 공산당 정부에게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체제전환기 중국의 국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통한 민족주의 강화는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주의 이념만으로는 중국을 통치하기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선택이다. 애국주의 교육운동은 이데올로기 약화로 인한 위기 극복, 사회통합 유지, 외부의 견제 및 압력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의 역할 등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중국 대학의 애국주의 교육은 유구한 역사 및 전통문화에 대한 특별한 강조, 근현대사 강조 및 공산당 업적의 홍보, 중국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국가 사랑의 강조, 통일된 다민족 국가에 대한 강조,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의 세례를 받은 신세대 네티즌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서를 표출하며 외부를 향해 맹목적인 민족주의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중국은 내부적으로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중국 사회를 이끌어갈 신세대 네티즌들의 민족주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개방 및 자유의 상징인 인터넷 이용의 확산은 권위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인터넷이 권위주의적 지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견되는 국수주의적 폐쇄성은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증거이다. 중국 공산당 정

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을 추동하면서 동시에 사이버공간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티즌은 민족주의를 매개로 공산당 정부와 암묵적으로 타협하며 공생을 모색하고 있다(윤경우 2011).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공산당 정부의 반응이 즉각 대중의 정서와 연결될 여지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적 행동도 네티즌이 정부의 목인 또는 소극적 대응 의도를 감지하지 않고는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없다. 네티즌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 순식간에 위축되어 버리는 그동안의 모습에서 쉽게 짐작이 간다. 적어도 공산당의 방관 내지는 목인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주의 표출은 그 내용이나 확산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이버 세계의 모습은 대체로 현실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중국의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국수주의적 폐쇄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기제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이버공간은 기술적으로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와 편협한 사고를 가진 네티즌의 이용패턴으로 인해 개방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티즌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공간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사이버공간을 체제 유지 및 공산당 집권 강화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통로로 활용하면서 네티즌을 공산당 집권 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공산당 정부의 관리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네티즌들은 국가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만 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일단 뭉치면 공산당 집권체제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네티즌들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으려할 때마다 국가는 개입할 것이다. 최소한 당분간은 국가의 엄격한 사회통제 능력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공

산당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오프라인 현실의 직접적인 저항으로 연결
되기 쉽지 않지만, 사이버공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고려하면 영원히 체제
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 김정호, 2007, “중국 중등사회과의 애국주의 교육 내용 분석”, 『사회과 교육』, 46권 3호, pp. 103-124.
- 박기철, 2011,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사례와 영향”, 『중국학연구』, 55집, 3월, pp. 93-119.
- 백지운, 2005, “전지구화 시대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중국현대문학』, 34호, 9월, pp. 255-278.
- 서진영, 2006, “세계화시대의 중화민족주의”, 서진영·김인성, 『세계화시대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pp. 19-36.
- 윤경우, 2011,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성격과 특징”, 『중국학논총』, 34집, pp. 329-353.
- 윤경우, 2007, “중국의 반한류(反韓流)와 사이버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한국학세계학술대회 발표자료(부산, 8월 23-25일).
- 윤휘탁, 2007,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서울: 푸른역사.
- 이춘복, 2009,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동화주의: 북경사범대학 중등역사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통권 6호, 상반기), pp. 81-108.
- 전재호, 2004, “세계화 시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20권 3호(통권 46호, 가을), pp. 61-92.
- 조영남, 2002, “개혁기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관계: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과학』, 24권 1호, pp. 171-194.
- 卜建華·趙金亮, 2009, “當代中國網絡民族主義探析,” 『烟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2卷 2期, pp. 109-113.
- 丁如許, 2006, “開展愛國主義教育活動,打造德育品牌,” 『上海教育科研』, 6期, pp. 94-95.
- 李新, 1996, “談市場經濟條件下的大學生愛國主義教育,” 『南都學壇』

- (哲學社會科學版), 16卷, 5期, pp. 101-102.
- 栗志剛, 2004, “全球化視野中的民族主義芻議,” 『華中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6期, pp. 4-9.
- 柳禮泉, 2008, 『毛澤東思想, 鄧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概論(修訂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劉夢娟·唐智敏, 2008, “當前大學生愛國主義教育的理性思考和實踐探索,” 『今日南國』, 112期(12月), pp. 49-50.
- 劉瑞復·李毅紅, 2008, 『思想道德修養與法律基礎』,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羅迪 毛玉西, 2006, “爭論中的網絡民族主義,” 『中國青年研究』, 5期, pp. 47-51.
- 潘亞玲, 2008, “中國人對美國的網絡民族主義,” 『2008年度上海社會科學界第6屆學術年會文集』, 11月 1日.
- 尚洋, 2005, “網絡民族主義: 並不虛似,” 『世界知識』, 34期, pp. 61-63.
- 陶文昭, 2009, “網絡民族主義探因,”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22卷, 2期, pp. 87-90.
- 王軍, 2006, “試析當代中國的網絡民族主義,” 『世界經濟與政治』, 2期, pp. 22-29.
- 王英鑾, 2009, 『思想道德修養與法律基礎』,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楊飛龍·王軍, 2010, “網絡空間下中國大眾民族主義的動員與疏異,” 『民族理論與民族政策』, 1期, pp. 23-29.
- Bajora, Jayshree, 2008, “Nationalism in Chin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http://www.cfr.org/china/nationalism-china/p16079>), April 31(검색일: 2009년 12월 1일).
- Gries, Peter Hays, 2004,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rison, James, 1969, *Modern Chinese Nationalism*, New York: Hunter College of the City of New York.
- King, Winnie, 2010, “Online Chinese Nationalism Toward the

- European Union: Economic and Diplomatic Implications of the Olympic Torch Relay Protests,” Simon Shen and Shaun Breslin, eds., *Online Chinese Nationalism and China’s Bilateral Relations*, Lanham: Lexington Books, pp. 177-198.
- Lee, Chun-win, 2010, “Online Nationalism and Sino-UK Relations,” Simon Shen and Shaun Breslin, eds., *op. cit.*, pp. 199-216.
- Liu, Shi-diing, 2010, “Networking Anti-Japanese Protests: Popular Sovereignty Reasserted since 2005,” Simon Shen and Shaun Breslin, eds., *op. cit.*, 73-90.
- Pan, Yaling, 2010, “The ‘Two Americas’ Dichotomy: Online Chinese Nationalism Toward the United States,” Simon Shen and Shaun Breslin, eds., *op. cit.*, 129-158.
- Pye, Lucian W., 1996,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The Search for Nation in Modern Chinese Nation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eilly, James, 2010, “China’s Online Nationalism Toward Japan,” Simon Shen and Shaun Breslin, eds., *op. cit.*, 45-72.
- Shen, Simon, 2010, “Alternative Online Chinese Nationalism: Response to the Anti-Japanese Campaign in China on Hong Kong’s Internet,” Simon Shen and Shaun Breslin, eds., *op. cit.*, 91-109.
- Wu, Xu, 2007,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Lanham: Lexington Books.
- Zhao, Suisheng, 1998, “A State-led Nationalism: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n Post-Tiananmen Chin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1, No. 3, pp. 287-302.

China's Patriotic Education and Cyber-Nationalism

Yun, Gyong-woo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provide content analysis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led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and the cyber-nationalism which emerged in China in the 1990's.

I examine the public directives issued by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to impose a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 also examine the texts of the courses which all Chinese college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Their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directives are well reflected in the contents of those texts and that college students being brain-washed by the patriotic education become facilitators for excessive nationalism in the Chinese cyberspace.

It appears that the dependence on patriotism to build support for the Communist party government and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have a direct impact on the strong nationalistic sentiment of the Chinese college students who are leading the public opinion in the cyberspace.

Keywords : China, Patriotic Education, Cyber-nationalism